

#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역할에 대하여\*

홍 우 평

(독어독문학과 강사)

##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2차언어습득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서 보편문법 (Universalgrammatik) 이론의 하나인 원리-매개변항이론(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Chomsky 1981, 1986 참조)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 이론의 관점하에서 2차언어습득을 연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는지, 그리고 이 질문들이 어떠한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해명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데 있다.<sup>1)</sup> 이를 통하여, 1차언어습득의 이론으로 발전되어 온 원리-매개변항이론이 2차언어습득과정의 이론적 규명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1차언어습득에 있어서의 보편문법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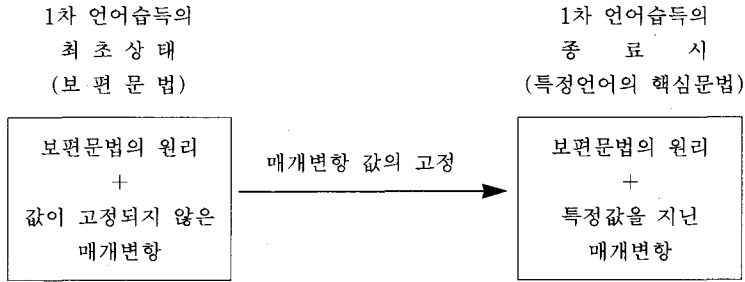
원리-매개변항이론에서는 1차언어습득을 이미 인간에게 생득적인 보편적 언어지식이 배워야 하는 언어의 지식으로 특정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인간은 자연언어가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불변의 특징에 대한 지식과, 어떤 측면에서 자연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문법의 원리(Prinzipien)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문법의 매개변항(Parameter)이다. 보편문법의 원리들이 1차언어습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등의 변화를 겪지 않는 반면, 매개변항들의 값은 언어환경으로 주어지는 언어자료에 근거하여 배워야 하는 언어의 값으로 고정됨으로써, 해당언어의 핵심적 측면의 습득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 과정을 간단히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제시한 1차언어습득의 과정은 언어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인

---

\*한국독어독문학회 1994년도 봄철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임.

1) 본고에서 "2차언어습득"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의 언어를 습득(본고에서 "1차언어습득"으로 칭함) 한 이후에 또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외국어습득"이라는 용어가 좀 더 낫을 수도 있겠으나, 2차언어가 습득자의 국적상 항상 외국어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림 1〉

간이 한 언어를 모국어로 자유자재로 구사하기에 이른다고 할 때 습득하게 되는 언어지식은 해당언어의 제 분야를 망라하게 되며, 여기에 음성학적-음운론적 지식, 형태론적 지식, 통사론적 지식, 의미-화용론적 지식이 포괄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한 언어의 지식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해당 언어의 어휘항목들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핵심문법”이라는 말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바는, 원리-매개변항이론이 언어의 모든 분야의 지식의 습득을 해명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이론內의으로 “핵심적”으로 보고있는 언어지식의 습득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통사론적인 지식이 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항은 언어들간의 통사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림 1에 제시한 1차언어습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보편문법을 이루는 원리와 매개변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연언어를 심도있게 비교연구함으로써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통사적 원리를 찾아내고, 몇가지의 값을 선택할 수 있는 매개변항에 의해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언어간의 통사적 차이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80年代 초반 이후 원리-매개변항이론 종사자들의 주된 관심이 바로 상술한 문제에 있었다. 그동안 영어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언어가 연구되었고, 한번 설정된 원리와 매개변항들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이전에 고려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의 자료에 의거하여 정밀화 되어가는 추세이다(Haegemann 1991 참조).

그러나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항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의 1차적인 관심은 그림 1에 제시한 언어습득 모델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기 보다는, 인간의 통사론적 지식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의 오른쪽 부분에 드러나 있듯이 원리-매개변항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언어의 핵심문법은 언어보편적인 원리들과 1차 언어습득을 통하여 특정값으로 고정된 매개변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항을 찾아내고 매개변항의 값을 언어마다

상이하게 할당해 주는 일은 바로 언어지식의 핵심적인 구성성분을 찾아내는 일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향을 찾아내는 일이 그림 1의 언어습득 모델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선결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밝혀진 원리와 매개변향들이 그림 1의 언어습득 모델에 함의되어 있는 역할을 1차 언어습득 과정에서 실제로 하는가의 문제를 규명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언어비교에 의해 밝혀진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향을 근거로 하여 1차언어습득의 과정이 그림 1에 제시한 모델에 합치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지는 원리-매개변향이론에서 1차언어습득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검토해봄으로써 잘 드러난다.

우선 언어보편의 원리들을 인간이 이미 알고 있고, 이 원리들이 1차언어습득의 초기상태로부터 종료시까지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린이들이 한 언어의 핵심문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잠정적 문법체계들이 보편문법의 원리를 어기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함의의 진위여부는 1차언어습득 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발화들을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따질 수 있다. 이 언어자료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구성하는 문법체계들을 단계별로 구성해 내어, 이 체계들이 보편문법의 원리들이 주는 제약을 어기지 않음을 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보편문법의 원리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주장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심문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매개변향의 값이 배워야 하는 언어의 값으로 고정된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자.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원리-매개변향이론에서 되도록 소수의 매개변향을 설정함으로써 언어간에 존재하는 가능한 많은 차이점을 포착하고자 한다는 점이 열쇠를 제공한다. 언어 A에서 매개변향  $P_1$ 의 값이 +로, 그리고 언어 B에서는 -로 고정된다고 할 때, 이것은 예컨대 A는 통사적 특성 a를 소유하고 B는 통사적 특성 x를 소유한다는 사실의 포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A는 a, b, c의 여러가지 성격을, B는 이와 다른 x, y, z의 여러가지 성격을 지님을 동시에 포착해 준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나의 매개변향에 의해 언어간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론구성상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설명력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또한 1차언어습득이 매우 경제적으로 이루어짐을 함의한다. 언어 A를 습득하는 어린이가 매개변향  $P_1$ 의 값을 +로 고정하는 순간 이 언어의 성격 a, b, c가 동시에 습득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언어 B를 습득하는 어린이가 이 매개변향의 값을 -로 고정하는 순간 B의 성격 x, y, z가 동시에 습득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차언어습득에서 매개변향값의 고정이 일어난은 특정 매개변향의 특정한 값에 의존하는 해당언어의 몇가지 성격이 동시에 습득됨을 보임으로써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다.<sup>2)</sup>

1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항의 상술한 역할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할 때, 인간의 경이로운 언어습득 능력, 즉 제한된 언어자료와의 접촉을 바탕으로 5-6 년의 짧은 시간에 한 언어의 핵심문법을 완벽히 습득해내는 능력이 이론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원리-매개변항이론의 입장이다. Hyams(1986) 이후 다양한 언어의 1차언어습득 과정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1차언어습득의 자료들이 원리-매개변항이론의 가설들을 뒷받침해 줌을 보여 주고있다.<sup>3)</sup>

### 3. 2차언어습득과 보편문법

80年代 중반이후, 원리-매개변항이론을 토대로 한 1차언어습득의 경험적 연구에 덧붙여, 2차언어습득의 연구에 원리-매개변항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기를 띠고 있다(Flynn/O'Neil 1988, White 1989 참조). 원리-매개변항이론이 1차언어습득에 있어서 통사론적 지식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이론을 2차언어습득의 연구에 적용할 때 역시 연구의 초점이 자연히 통사론적 지식의 습득에 맞추어지고 있다.<sup>4)</sup>

3.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리-매개변항의 이론이 2차언어습득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3.1. 2차언어습득과 1차언어습득의 차이점에 대하여

2.의 말미에서 언급하였듯이 원리-매개변항에 입각한 1차언어습득 연구가 1차언어습득이 단기간에 체계적인 언어자료의 도움없이, 그리고 거의 예외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때, 원리-매개변항 이론을 2차언어습득의 연구에 적용하는 데 대해 당장 의문시 될 수 있는 점은 2차 언어습득이 의견상 1차 언어습득과 너무나도 판이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될 것이다. 즉 원리-매개변항이론의 적용에 핵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이 2차언어습득의 경우 언어습득자가 대부분 체계화된 언어자료에 접할 수 있고, 이 언어자료를 토대로 1차언어습득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의 의도적인 노력을 들인다 할 지라도, 해당언어를 완벽히

2) Clahsen(1991)에 독일어의 1차언어습득과정에서 관찰되는 매개변항값 고정 효과의 효과가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3) 그 실례로서 최근 학술지 Language Acquisition에 게재되고 있는 논문들을 들 수 있다.

4) 2차언어습득 연구사 내지 연구현황을 일별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2차 언어습득 과정을 조명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사회언어학적 관점, 소용이론적 관점, 의미-화용론적 관점 등(Larsen-Freeman/Long 1991 참조)이 그것인데, 이하에서 2차언어습득의 논의는 통사론적 지식의 습득에 대한 것으로 제한됨을 밝혀둔다.

습득하는 일이 예외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1차언어습득이 체계적인 언어자료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완벽히 이루어진다는 점에 정면으로 대응되는 관찰로써, 1차언어습득의 이론인 원리-매개변항이론을 2차언어습득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동기가 불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2차언어습득에는 원리-매개변항 이론이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차언어습득에서는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생득적인 언어습득 장치로서의 보편문법의 원리나 매개변항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가설이 강력히 대두되었다(Bley-Vroman 1989, 1990, Schachter 1988). 이러한 관점에서는 2차언어습득이 주로 주어지는 언어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차언어의 문법체계에 대한 가설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새로운 자료에 비추어 수정해 나가는 귀납적인(induktiv) 규칙 설정의 과정(Generalisierungsprozeß)이며, 이 과정은 특별히 언어습득만을 위해 인간이 지니고 태어나는 능력과는 무관한,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문제해결 능력(Problemlösungsstrategie)의 하나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왜 2차언어습득에 있어서는 습득자마다 상이한 성취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2차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이 어려운가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1차언어습득이 생득적인 언어습득 장치 (= 보편문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연역적(deduktiv)인 과정인 반면, 2차언어습득은 다분히 귀납적인 습득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2차 언어습득은 1차언어습득과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극히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원리-매개변항이론을 2차언어습득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2차언어습득이 1차언어습득과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주장이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론적 가설은 경험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원리나 매개변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비로소 위의 가설이 검증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2차언어습득에 1차언어습득의 전형적인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두 언어습득의 과정이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가설을 도출해 내는 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 하였던 1차언어습득의 외견상의 특징 들이 1차언어습득에서의 보편문법과 같은 생득적인 언어습득 장치의 역할을 전제함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2차언어습득에 동일한 특징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주장은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역할을 꼭 전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단정적 주장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원리나 매개변항의 역할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며, 2차언어습득의 일반적인 성격

을 1차언어습득의 성격과 피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해명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원리-매개변항이론을 2차언어습득의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종래의 2차언어습득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명확히 이론적으로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는 2차언어습득의 몇가지 특징을 단일한 이론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 3.2. 비교분석(Kontrastive Analyse)의 대안으로서의 원리-매개변항이론

우선 원리-매개변항이론이 2차언어습득에 있어서의 모국어 지식의 역할을 재조명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Flynn 1987a,b, Gass/Selinker 1992 참조).

Lado(1957) 이후 2차언어습득의 과정에 습득자의 1차언어지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하에, 습득자의 1차언어와 2차언어간의 비교분석(Kontrastive Analyse)이 2차언어습득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분석의 주된 목적은 2차언어습득의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국어 교육(Fremdspracheunterricht)의 지침을 마련 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2차언어습득자의 1차언어와 배워야 할 2차언어의 정밀한 비교에 의거하여 두 언어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목록화하고, 무엇보다도 상이점을 부각시켜 주는데 주안점을 두는 외국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2차언어습득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비교분석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그 이론적 토대는 2차언어습득자가 2차언어의 지식체계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1차언어의 지식을 전이(Transfer)한다고 하는, 다분히 행동주의적인 관점이었다. 2차언어와 1차언어가 유사한 부분에서는 긍정적 전이(Positiver Transfer)가 일어남으로써 2차언어지식의 습득이 수월한 반면, 두 언어가 상이한 부분에서는 1차언어 지식의 부정적 전이(Negativer Transfer)에 의한 간섭(Interferenz)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언어 지식의 습득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차언어습득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이 이 가설에 부합하지만은 않았다. 다시 말해 비교분석에 입각하여 긍정적 전이가 예측되었던 경우에 꼭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부정적 전이가 예측되었던 경우에 반드시 부정적 전이에 의한 2차언어 습득상의 어려움이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sup>6)</sup>

5) 이 점에 대한 보충논의로 Schwartz(1990), Hong(1991) 참조.

6) Ellis (1985, 2장) 에 이 문제가 비교적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반면, 2차언어습득에서 1차언어로부터의 전이효과가 가장 잘 입증된 분야가 음성학, 음운론 분야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우선 2차언어습득자의 1차언어와 2차언어를 비교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60-70年代에 비교분석에 입각한 2차언어습득의 연구가 주로 분류적 구조주의(taxonomischer Strukturalismus)의 방법론을 토대로, 언어비교에 있어서 지나치게 언어표층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언어표층상의 차이가 바로 언어습득의 난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식을 낳았다는 말이다. 언어습득의 과정이 어디까지나 심리적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차언어와 1차언어의 표층상에 드러나는 차이점들을 그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2차언어습득상의 장애로 본 가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때, 언어비교에 의해 언어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심리적 실재를 가진 인간의 언어지식체계로 명시화하는 원리-매개변항 이론은 종래의 비교분석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조주의의 분류적 방법론에 입각한 언어비교가 바로 심리적인 언어지식 체계의 비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한 언어비교는 바로 언어지식체계의 비교이기 때문에, 2차언어습득에 있어서의 1차언어지식의 전이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 타당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차 언어습득의 과정을 통해 한 언어의 값으로 고정된 매개변항이 그 매개변항의 값을 다르게 취하고 있는 언어를 2차언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의 문제가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하여 2차언어습득에서의 '1차언어지식의 역할을 해명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2차언어습득의 초기 단계에서 습득자가 1차언어의 매개변항값을 2차언어의 지식체계 구성에 전이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가설에서 흥미로운 점은 1차언어의 지식의 전이가 매개변항의 특정한 값에 연관되는 몇가지의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앞서 들었던 예를 이용하여 설명하자면 언어 A 를 모국어로 가진 성인이 언어 B 를 2차 언어로 습득할 때 매개변항  $P_1$ 의 값 +를 전이한다면, 언어 B에 통사적 특성 a, b, c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설을 설정할 것이고, 이 가설을 수정하지 않는 한 특성 a, b, c에 합치되는 문법체계를 배워야 하는 언어 B의 문법체계로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2차 언어습득에 있어서 1차언어 지식의 전이가 보편문법의 매개변항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주장은 2차언어습득에서 1차언어의 지식이 전이된다는 점 뿐 아니라, 그 전이의 속성까지를 이론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된다. 반면 앞에 예로 든 속성 a, b, c가 동시에 전이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 적어도 매개변항  $P_1$ 에 관한 한 2차언어습득에서의 1차언어지식의 전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들의 축적을 통하여 2차언어습득에 있어서의 1차언어지식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3. 2차언어습득의 창조적 측면을 해명하는 수단으로서의 원리-매개변항이론

2차언어습득에서 1차언어지식의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어온 이면에, 1차언어지식의 전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습득자들의 창조적인(kreativ) 언어습득능력이 2차언어습득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 또한 2차언어습득 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Dulay/Burt(1974a, b)를 시발점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2차언어습득과 1차언어습득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설득력을 얻게 된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의 근원은 Corder(1967)로 거슬러 올라간다.

Corder는 2차언어습득자들이 이미 한 언어를 알고 있음으로 하여 2차언어를 용이하게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며, 언어습득의 질적인 과정은 1차언어습득의 그것이든 2차언어습득의 그것이든 동일하다는 가설이 2차언어습득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곧 우리가 인간의 1차언어습득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창조적 측면을 2차언어습득능력에 대하여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Corder의 주장은 결국 2차언어습득에서의 1차언어의 역할을 정확히 분리해 내어 제시하고, 이 1차언어의 역할을 걸러낸 부분이 1차언어습득의 과정과 동일함을 보여줌으로써만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 정교한 경험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이론적 가설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Corder의 가설에 Selinker(1972)의 중간어("Interlanguage")의 가설, 즉 2차언어습득자가 비록 2차언어를 완벽히 습득하지는 못한다 할 지라도, 나름대로 고유한 2차언어지식체계를 구성해 나간다고 하는 가설이 이어짐으로써, 2차언어습득의 창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70年代 중반이후 1, 2차 언어습득 과정의 유사성 뿐 아니라 2차언어습득자들이 2차언어의 특정한 한 현상을 습득할 때 밟아가는 과정이 공통적이라는 점(Cazden et al. 1975, Felix 1978), 2차언어의 여러가지 서로 다른 현상들을 습득하는 데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점(Dulay/Burt 1974a, b) 등이 밝혀짐으로써, 2차언어습득에 1차언어습득 못지 않은 규칙성과 창조성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는 증거들이 축적되었다.

2차언어습득 연구의 이러한 전통은 단지 1차언어지식의 전이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던 비교분석의 그것과는 분명 구분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경이로운 언어습득능력이 과연 1回的인가의 문제, 다시말해 생득적 언어습득장치가 1차언어습득이 종료된 후의 2차언어습득에 있어서는 더이상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가의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고자 했음은 분명하다. 외국어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2차언어습득을 지배하는 인간의 인식론적, 심리적 과정 자체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들으로써, 2차언어습득 연구를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고유한 학문영역으로 확립하는 데에 단초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2차언어습득의 창조적 측면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미약했다는 데 있다. 2차언어습득 나름의 창조적 측면이나 1차언어습득과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통일성을 갖춘 언어습득 이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가 단편적인 증거의 열거로만 끝나 버릴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나 경험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가설들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난점이 따르게 된다.

이 점에 원리-매개변항이론을 2차언어습득 연구에 원용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 원리-매개변항이론은 다름아닌 인간의 1차언어습득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2차언어습득이 이 이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의 언어습득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를 밝히는 일은 2차언어습득의 창조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명시화하는 데 뿐만 아니라, 그 측면이 1차언어습득의 그것과 유사한가를 밝히는 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설정되는 구체적인 질문들은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하여 1차언어습득의 과정을 연구할 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2차언어습득자가 2차언어의 핵심문법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중간단계로 설정하는 2차언어의 문법체계들이 보편문법의 원리를 어기는 일이 결코 없는가의 문제가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고, 2차 언어습득의 과정에서 매개변항값의 재고정이 일어나는가의 문제가 추가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매개변항값의 재고정이라는 말은 1차언어습득의 과정을 통하여 매개변항이 이미 취한 값이 2차언어에서의 그것과 다를 경우, 매개변항의 값이 2차언어에 맞게 달라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진다는 의미에서 도입된 용어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1차언어의 값을 지닌 매개변항이 2차언어습득의 초기에 전이된다는 증거를 해당 매개변항의 값에 기인하는 1차언어의 여러가지 문법지식이 동시에 전이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면, 2차언어습득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매개변항 값의 재고정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새로운 값에 기인하는 2차언어의 특징들이 동시에 습득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언어 A를 1차언어로 가지는 사람이 언어 B를 2차언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매개변항  $P_1$ 의 값이 1차언어에서의 값 +에서 2차언어에서의 값 -로 재고정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값 -에 기인하는 언어 B의 특성  $x, y, z$ 가 동시에 습득되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증거는 1차언어습득에서 매개변항값의 고정이 일어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때 전제조건으로서 2차언어습득자의 1차언어와 습득해야 하는 2차언어에서 서

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매개변항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상술한 방법으로 2차언어습득에 있어서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항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축적됨으로써, 2차언어습득에서의 1차언어지식의 역할과 2차언어습득의 창조적 측면이 하나의 단일한, 그리고 명시적인 언어습득이론에 입각하여 일관적으로 해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2차언어습득의 연구에 원리-매개변항이론을 적용하는 데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 4. 연구의 실례와 전망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한 2차언어습득의 연구가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언어습득의 과정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는 증거를 경험적으로 축적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흥미있는 연구테마들이 주는 매력때문에 이미 상당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꼭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수행된 연구의 자료들을 원리-매개변항이론의 관점下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상반된, 혹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기도 할 뿐 아니라,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한 연구에서 얻어진 증거라 할지라도 해석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Eubank 1991 참조). 이는 원리-매개변항이론 자체가 정체되어있지 않고 변화, 발전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80年代 중반이후의 연구현황만 하더라도 본고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를 하나의 연구예로 들고, 한국에서의 연구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sup>7)</sup>

ZISA그룹이<sup>8)</sup> 로망스어를 모국어화하는 성인들이 독일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과의 정기적인 인터뷰를 녹음함으로써 수집하였던 언어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더듬어보면, 우선 연구결과의 최초의 종합적 보고라 할 수 있는 Clahsen et al.(1983)에서는 자료의 해석에 원리-매개변항이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습득자들이 독일어의 어순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밝아가는 과정을 명시화 할 수 있었으

7)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한 2차언어습득연구의 현황을 상세히 제시한 것으로 White(1989)가 있고, 이 분야의 연구논문들이 주로 발표되는 학술지로 Second Language Research가 있다.

8) ZISA는 Zweitspracherwerb italienischer (portugiesischer) und spanischer Arbeiter의 약어이다. ZISA그룹은 1974년 독일 Wuppertal대학에서 조직되어 1980년에 이르기까지 45명의 로망스어를 모국어화 하는 성인들이 독일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연구하게 된다.

나, 이 과정이 주로 사회심리학적(sozialpsychologisch) 관점에서 해석되었다(Clahsen et al. 1983, 6장 참조). 그러나 Clahsen/Muysken(1986)에서 이 과정과 독일 어린이들이 1차언어습득과정에서 독일어의어순을 배워가는 과정을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하여 비교 연구한 이후로, 2차언어습득에서 독일어 어순의 습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Duplessis et al.(1987), Clahsen/Muysken(1988), Tomaselli/Schwartz(1990), Meisel(1991), Schwartz(1991)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망스어를 모국어로 가진 성인이 독일어의 어순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보편문법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Clahsen/Muysken 1986, 1989, Meisel 1991) 이에 대한 다양한 반론(Duplessis et al. 1987, Tomaselli/Schwartz 1990, Schwartz 1991)이 그것인데, 전자의 주장은 해당 2차언어습득자들이 독일어 어순의 습득에 있어서 보편문법의 원리에 배리되는 규칙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입장이고, 후자의 주장은 독일어습득의 초기에는 로망스언어의 어순에 해당하는 매개변항의 값이 전이되나, 습득의 진행과정에서 이 매개변항의 값이 독일어 어순에 해당하는 값으로 재고정되는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논쟁의 결론은 아직 나지않은 상황이지만, 2차언어 습득의 연구에 원리-매개변항이론이 도입됨으로써 흥미있는 논쟁이 전개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원리-매개변항이론에 입각한 2차언어습득연구의 역사가 아직 짧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원리나 매개변항의 역할에 대하여 아직은 밝혀진 부분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크다. 보다 분명한 증거의 축적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기에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2차언어습득자료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도 이미 한국인의 2차언어습득자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이 인구어를 2차언어로 습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한국어가 언어유형적으로(sprachtypologisch) 인구어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국어와 인구어의 유형적 상위가 원리-매개변항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상이한 매개변항값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개변항값의 전이나 그 값의 재고정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말이다.<sup>9)</sup>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선 한국어와 영어간의 통사적 상위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독일어, 한국어와 불어 등의 통사적 상위를 원리-매개변항이론의 매개변항을 이용하여 밝혀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9) 몇가지 예를 들면, Bley-Vroman et al.(1988), Schachter(1990), Finer/Broselow (1986) 등에서 한국인의 영어습득과정에서 보편문법의 역할이 연구되었고, 한국인의 독일어 습득과정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룬 연구로 Clahsen/Hong(1993), Hong(1993) 등이 있다.

## 5. 맺는 말

인간이 지극히 혼란스럽고 제한된 언어자료와의 접촉만을 토대로 하나의 언어를 짧은 기간내에 모국어로 완벽히 습득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운 만큼이나, 인간의 언어습득능력이 단지 1회의 인가의 문제, 즉 1차언어습득의 종료된 이후에는 소실되고 마는 것인가의 문제 또한 인간의 이해를 위해 학문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흥미로운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서는 단지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는, 보다 명시적인 이론적 토대를 가진 2차언어습득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보이하고자 하였던 것은 현대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사이론이자 1차언어습득이론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원리-매개변항이론이 2차언어습득의 잘 알려진 몇가지 특성을 통합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인간의 2차언어습득 과정 자체의 이론적 규명은 장차 외국어 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구성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장기적 안목의 프로젝트에 원리-매개변항이론이 하나의 중요한 시발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Bley-Vroman, R. (1989), What is the logical proble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 Gass & J. Schachter (hrsg.), 41-68.
- Bley-Vroman, R. (1990), The logical problem of foregin language learning. *Linguistic Analysis* 20: 3-49.
- Bley-Vroman, R., S. Felix & G.L. Ioup (1988), The accessibility of Universal Grammar in adult language learning. *Second Language Research* 4: 1-32.
- Cadzen, C., H. Cancino, E. Rosansky & J. Schumann (197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quences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Praeger.
- Clahsen, H. (1991), Constraints on parameter setting: A grammatical analysis of some acquisition stages in German child languages. *Language Acquisition* 1: 361-391.
- Clahsen, H., J. Meisel & M. Pienemann (1983), *Deutsch als Zweitsprache: Der*

- Spracherwerb ausländischer Arbeiter*. Tübingen: Gunter Narr.
- Clahsen, H. & P. Muysken (1986), The availability of Universal Grammar to adult and child learners: A study of German word order. *Second Language Research* 2: 93-119.
- Clahsen, H. & P. Muysken (1989), The UG paradox in L2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5: 1-29.
- Clahsen, H. & U. Hong (1993), Agreement and null subjects in German L2 development: New evidence from reaction time-experiments. *Essex Research Reports in Linguistics* 1: 1993. University of Essex.
- Corder, S.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 161-170.
- Dulay, H. & M. Burt (1974a), Natural sequenc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4: 35-73.
- Dulay, H. & M. Burt (1974b), A new perspective on the creative construction proces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4: 253-278.
- DuPlessis, J., D. Solan, L. Travis & L. White (1987), UG or not UG, that is the question: A reply to Clahsen and Muysken. *Second Language Research* 3: 56-75.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ubank, L. (hrsg.) (1991), *Point counterpoint. Universal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 Felix, S. (1978), *Linguistische Untersuchungen zum natürlichen Zweitsprachenerwerb*. München: Fink.
- Finer, D.L. & E.I. Broselow (1986),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reflexive binding. *Proceedings of NELS* 16: 154-167.
- Flynn, S. (1987a), *A parameter-setting model of L2-acquisition*. Dordrecht: Reidel.
- Flynn, S. (1987b), Contrast and construction in parameter-setting model of L2-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37: 19-62.
- Flynn, S. & W. O'Neil (hrsg.) (1988), *Linguistic theor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ordrecht: Kluwer.
- Gass, S. & J. Schachter (hrsg.) (1989), *Linguistic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ss, S. & L. Selinker (hrsg.) (1992), *Language Transfer in language lear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Haegeman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Hong, U. (1991), External constraints and the role of Universal Gramma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ie des Lexikons : Arbeiten des Sonderforschungsbereichs* 282, 4: 67-80.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 Hong, U. (1993), Null-Subjekte im Erst- und Zweitspracherwerb des Deutschen: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im Rahmen der 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Dissertation, Heinrich-Heine- Universität Düsseldorf.
- Hyams, N. (1986),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theory of parameters*. Dordrecht: Reidel.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rsen-Freeman, D. & M. Long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London: Longman.
- Meisel, J. (1991), Principles of Universal Grammar and strategies of language use: On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L. Eubank (hrsg.), 231-276.
- Schachter, J. (198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Universal Grammar. *Applied Linguistics* 9: 219-235.
- Schachter, J. (1990), On the issue of completenes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6: 93-124.
- Schwartz, B. (1990), The Fundamental Difference Hypothesis. A critical evaluation., ms., Boston University.
- Schwartz, B. (1991), A response to Meisel: Conceptual and empirical evidence. In: L. Eubank (hrsg.), 277-304.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209-231.
- Tomaselli, A. & B. Schwartz (1990), Analysing the acquisition stages of negation in L2 German: Support for UG in adult SLA. *Second Language Research* 6: 1-38.
- White, L. (1989),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Abstracts》

## Zur Rolle der Universalgrammatik im Zweitspracherwerb

Upyong Hong

Im Rahmen der 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PPT) stellt man sich vor, daß dem Menschen die Universalgrammatik (UG) angeboren ist. Die UG besteht aus einer kleinen Anzahl sprachuniverseller Prinzipien und je nach der Sprache unterschiedlich zu belegender offener Parameter. Die UG-Prinzipien müssen demnach nicht gelernt werden; sie bilden von vornherein eine invariante Komponente des sprachlichen Wissens. Demgegenüber sollen die jeweiligen Parameter der UG im Verlauf des Erstspracherwerbs (L1-Erwerb) aufgrund des sprachlichen Inputs mit Werten der Zielsprache belegt werden.

In letzter Zeit sind zahlreiche empirische Untersuchungen zur kindlichen Sprachentwicklung unter dem Gesichtspunkt der PPT durchgeführt worden. Dabei setzt man sich mit der Frage auseinander, inwiefern die Grundannahmen der PPT mit den Charakteristika der kindlichen Sprachentwicklung zu vereinbaren sind: Gibt es Evidenz dafür, daß das grammatische System der Kindersprache von vornherein durch die universellen Prinzipien der PPT beschränkt wird? Läßt sich anhand der Eigenschaften der Kindersprache in verschiedenen Entwicklungsphasen feststellen, ob bzw. in welchen Formen die Parameterbelegungen stattfinden? Durch diese Fragestellungen ist eine neue, vielversprechende Perspektive in die Spracherwerbsforschung eingebracht worden.

Zusätzlich ist die PPT für die Untersuchung zum Zweitspracherwerb (L2-Erwerb) herangezogen worden. Die zugrundeliegende Vorstellung dabei ist, daß die PPT für die Klärung einiger umstrittener Fragen zum L2-Erwerb eine neue theoretische Grundlage bietet.

Daß beim L2-Erwerb der Transfer ausgangssprachlichen Wissens eine wichtige Rolle spielt, gehört zu den einflußreichen Standardannahmen der L2-Erwerbsforschung. Angesichts der Schwierigkeiten der herkömmlichen Untersuchungsmethode bietet die PPT einen neuen Theorierahmen für die Untersuchung zur Rolle des Transfers im L2-Erwerb. Der PPT zufolge werden im Laufe des L1-Erwerbs offene Parameter mit Werte der Zielsprache belegt. Dies bedeutet, daß das L1-Wissen nach Abschluß des L1-Erwerbs

interessante Untersuchungsfrage in bezug auf den Transfer ist somit, ob in frühen Phasen des L2-Erwerbs L1-Parameterwerte übertragen werden. Ferner stellt sich die Frage, ob verschiedene Eigenschaften der Ausgangssprache, die durch einen Parameter miteinander assoziiert werden, zugleich transferiert werden. Die Klärung dieser Frage wird dazu beitragen, kognitive Mechanismen des Transfers näher zu spezifizieren.

Ein zusätzlicher Einsicht aus den herkömmlichen Untersuchungen zum L2-Erwerb ist, daß der L2-Erwerb in gewisser Hinsicht durch kreative kognitive Mechanismen geleitet wird. Die PPT bietet auch hier eine theoretische Grundlage, Eigenschaften der kreativen Aspekte des L2-Erwerbs weiter zu untersuchen. Geklärt werden soll, ob bzw. inwiefern die UG nach Abschluß des L1-Erwerbs reaktiviert werden kann: Werden L2-Übergangsgrammatiken durch Optionen der UG streng beschränkt? Können Parameter der UG, die im Laufe des L1-Erwerbs bereits belegt sind, aufgrund des neuen Inputs umbelegt werden? Durch die Klärung dieser Frage lassen sich neue Einsichten zum kognitiven Prozeß des L2-Erwerbs liefern.